

[ 사회 ]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시작... 운전자들 백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부근 단속 현장. 이날 광주에서는 면허취소 18명·정지 27명 등 45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눈발

서해안 지방 1cm 가량 내릴 듯

광주·전남지역에 3일 강추위와 함께 눈발이 휘날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3~9도에 머물러 춥겠다. 또 흑산도·홍도에는 강풍주의보(초속 14m 이상), 여수·완

Weather forecast for December 3rd (12월 3일) show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ju, and Jeju, along with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precipitation and wind speeds.

“광주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배치 기준 보조교사 전문성 고려안해 학생 피해”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각급 학교 비정규직 배치 기준이 보조교사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주경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시내 초·중·고교에 '교육행정지원관 및 공립학교 정원 배치 기준(안)'을 전달했다. 이 기준에는 교육지원 분야의 비정규직에 '학교당 교육업무보조원 2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학교의 교육업무보조 비정규직은 도서관 업무를 맡는 사서, 과학 수업을 보조하는 과학실험보조, 교무 전반을 돕는 교무보조 등 3직종이다. 시교육청의 정원 배치 기준을 따를 경우 사서와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등 3직종의 직원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 '디지털 교과서' 첫 도입

광주에서도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양산동 연제초등학교(교장 윤상길)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2년간 5~6학년 2학년씩 모두 4학급에서 시범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급당 전자철권 1개, 학생 1인당 전용 학습단말기(태블릿 PC·학습당 38명 기준), 충전함 1세트 등 1천680만원 상당의 학급 시설을 지원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연제초등학교를 비롯해 15개 학교가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신규 지정(기존 5개교)됐다.

주당들의 변명 안통했다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단속 지역은 구 대평극장 앞·화동 삼거리 등 상습 음주운전 구간 세 곳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변명'도 가지각색. 경찰에 통사정하는 애원 형이 많았고 ▲버티기 형 ▲도주 형 ▲대들기 형 ▲업포 형 등등 그 '모습'도 다양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정지 대상인 이모(31·서울시)씨는 "서울서 친구를 만나러 내려왔는데 객지 사람이나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조희 결과 앞서 두 차례나 면허정지된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자영업자인 정모(31·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음주 측정을 20여 분간 거부하고 버티다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모(25·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는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10m만 운전했다"며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0.08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단속 징계 고민 40대 교사 실종

음주단속에 적발돼 징계받을 것을 고민하던 40대 교사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0시께 완도 모 중학교 관사에 사는 임모(43) 교사가 사라졌다. 임 교사의 전남 56기37XX호 흰색 소나타 승용차는 이날 오전 11시께 완도 읍-신지면을 연결하는 '신지대교'에서 발견됐다. 임 교사는 지난달 12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되지 않는다"며 동료

아열대 조류 '검은 이마 직박구리' 국내 자연번식 신안서 첫 확인

아열대성 조류인 검은이마 직박구리(사진)의 자연번식이 신안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월4일 신안군 흑산면 정도에서 검은이마직박구리 어미 두 마리와 어린 새 5마리가 관찰돼 자연번식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7월19일엔 어미 한 마리와 동지를 갖 떠난 어린 새가 두 마리가 발견됐다. 검은이마직박구리는 몸길이 18.5cm, 몸무게는 올리브 갈색이며 몸의 아랫면은 밝은 갈색이다. /오광필기자 kroh@kwangju.co.kr

'5월의 누이' 하늘로 故 박경순씨 영결식

간암으로 숨진 '5월의 누이' 고(故) 박경순 전(前)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의 영결식이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와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장(葬)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가족·기관단체장·유족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조사를 통해 "살아생전 '5·18 민주항쟁' 활동을 비롯한 오월의 진실을 알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신 '오월의 누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면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이날 북구 운정동 광주 시립묘지 제5묘역에 안장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sik Special Restaurant' (한식전문점 뜰안채)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food, opening on November 24th,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eongcheonghoosu'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featuring a scenic view of a lake and residential development, with contact details for the real estate agent.